

‘겨울왕국2’ 극장가 흥행 신드롬

개봉 4일만에 누적관객수 400만명 넘어서 주인공 드레스 등 관련 상품·주제가 인기 스크린 독과점 논란 일기도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 (감독 크리스 벅, 제니퍼 리)가 개봉과 동시에 극장가를 사로잡았다. 지난 21일 개봉한 영화는 개봉 4일만인 24일 관객수 400만명을 넘어서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4일째인 이날 오후 1시 기준 누적 관객 수 403만 2245명을 기록해 흥행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는 개봉 첫날 관객수 60만 7836명을 동원했으며 22일 632만 575명, 23일 166만 1967명이 관람하며 누적 관객수 290만 2369명을 기록했다.

‘겨울왕국2’의 돌풍은 극장가를 넘어 유통가까지 몰아치고 있다. 개봉 전부터 ‘엘사’와 ‘안나’의 드레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레고를 비롯해 바다캐어 세트, 우산, 무드등, 아동용 여행용 가방 등 다양한 굶즈들이 출시됐다. 또 영화의 주제곡들은 음원사이트 멜론에서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고 지니, 빅스뮤직 등의 음원 차트 순위권에도 오르는 등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 주말 광주 시내 극장가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영화를 보러 온 어린이 등 가족관객들로 붐볐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은 주인공인 ‘엘사’와 ‘안나’의 드레스를 입고 영화를 보러와 눈길을 끌었다. 또 무인자동발권기 앞에는 20~30대 젊은층이 길게 줄을 서 예매를 하는 등의 모습이 영화의 인기를 입증했다.

영화 상영 중 어린 아이들은 눈사람 캐릭터인 ‘올라프’가 나오는 순간마다 웃음을 터뜨렸다. 또 관객들은 영화가 끝난 후 후쿠야마를 보기 위해 엔딩크레딧이 다 올라가도록 자리를 지켰다.

‘겨울왕국’은 ‘렛잇고’ 열풍을 일으키며 사랑받았던 ‘겨울왕국’ 이후 6년 만에 찾아온 속편이다. 크리스틴 벨, 이디나 멘젤, 조시 게드, 조나나 그로프가 목소리 연기에 나섰다. 전작에 이어 크리스 벅·제니퍼 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는 1편의 3년 후 이야기를 다룬다. ‘엘사’와 ‘안나’의 모험은 전보다 스펙터클해진 모습

으로 관객들을 찾아왔고 눈사람 ‘올라프’와 깜찍한 불의 정령 ‘브루니’ 등 개성만점 신스틸러 캐릭터들의 활약은 유쾌한 매력을 한껏 더했다.

영화의 관련 포인트는 역시 음악이다. 1편에 ‘렛잇고’가 있다면 2편에서는 ‘숨겨진 세상(into the unknown)’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렛잇고’를 이을 메인 테마곡 ‘숨겨진 세상’은 ‘렛잇고’보다 따라 부르기 어렵고 임팩트가 덜하지만 잔잔한 여운을 준다. 특히 후렴구에 반복되는 “아아아아~” 부분이 중독성 있다는 반응이다. 이밖에 ‘사랑이란 숲에서 길을 잃다(Lost in the Woods)’, ‘변하지 않는 건(Something never change)’ 등은 등장인물들의 스토리와 마음을 담은 노래들은 관객들을 영화에 더욱 몰입시키며 귀를 즐겁게 했다.

한편, 영화의 흥행과 관련해 스크린 독과점 논란도 일었다. 23일 이 영화는 전국 2642개 스크린에 걸려 1만 6220회 상영됐다. 상영점유율은 73.4%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과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원회(이하 반독과점연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왕국2’ 개봉에 따른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다시 한번 재점화 되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영화 관람을 원하는 관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



영화 겨울왕국2가 개봉 4일만에 4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가운데 24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영화관 주변 팬시점에 영화 캐릭터들과 관련된 상품들이 진열, 판매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의 이야기 담긴 자수책 만들었어요”

‘나의 삶 나의 기록...’ 전 26일까지 예술공간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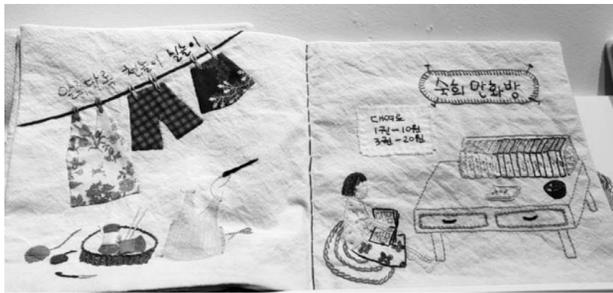
자신의 이야기를 한뼘한뼘 자수로 놓아 책을 만들었다. 어린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삶의 기록이다.

작은 도서관인 ‘책문화공간 봄’의 책 문화컨텐츠 전시 ‘나의 삶 나의 기록 예술로 피어나다’가 26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열린다. <사진> 이번 전시는 책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이 연결돼 파생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전시다. 시민 20여 명이

1년여 간 함께 모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한 내용들을 모았다.

‘책문화공간 봄’은 남구 노대동에 자리한 작은 도서관으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활동을 지속해 온 곳으로, 도서관이라는 기능을 넘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독서동아리,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다.

누군가 타인에 의한 책이 아닌 스스로의 책을 만들어 나만의 이야기들을 자서전처럼 엮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 25주 동안 소소한 삶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자신



의 삶을 기록한 노트를 시작으로, 한뼘한뼘 자수를 놓아 만든 자수책, 문자도, 서각 등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또 하나의 책이 됐다.

송의경씨는 “나의 이야기를 담은 자수

책을 만들면서 앞으로 달려갔던 삶을 돌아보고, 애써 피하려했던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었다”며 “내가 자수에 특기가 있다는 것도 알게됐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무사:불멸의 영웅들’ 연말 무대에

다음달 20·21일 ACC 예술극장 한국 전통 무예 액션 판타지

역량 있는 창작자들의 참여와 한국 전통 곡예, 첨단 무대기술로 탄생한 아시아의 어벤져스가 관객들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직 무대리 이진식)이 세계를 겨냥해 준비한 대형공연 ‘무사 MUSA : 불멸의 영웅들’(이하 무사)이 마침내 무대에 오른다. 12월 20일 오후 7시30분, 21일 오후 3시·7시 ACC 예술극장 극장1.

‘무사’는 고대 한반도를 배경으로 인간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대’ 무리와 이를 저지하여 평화를 지켜내려는 ‘천둥이’ 일행의 저승을 넘나드는 액션 판타지극이다. 주요 인물은 ‘박씨부인전’을 소재로 개발했다. 고전소설 속 ‘박씨’는 여성 영웅인 ‘천둥이’로 재탄생한다.

또한 한국 전통 무예와 곡예, 아크로바

틱, 플라잉 와이어 연기 등 역동적인 영웅들의 모습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특히 객석과 경계를 허문 ‘U’자형 무대, 미디어 아트 키네틱 라이트 아트(kinetic lights art) 등 첨단 무대기술은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관객에게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서 극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총연출과 각색은 2018 평창 문화올림픽 테마 공연 ‘천년향’의 제작감독 한경아가 맡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막식 및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개·폐막식 기술감독이었던 김성준이 총괄기술감독으로 일한다.

원작·시나리오의 연극 ‘삼도봉 컨피덴셜’과 뮤지컬 ‘로기수’를 쓴 김신후 작가이며 캐릭터 디자인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개·폐막식 미술제작감독으로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인면조’를 디자인한 배일환이다. R석 5만원, S석 3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12월20일 오후 7시30분, 21일 오후 3시·7시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공연 ‘무사 MUSA : 불멸의 영웅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광주시각장애인 상상클럽 다섯번째 사진전

25일부터 광주시청 시민숲

‘시각 장애인들의 희망을 담다.’

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광시련) 시각장애인 사진프로그램 상상클럽(회장 송상훈)의 다섯번째 전시회가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광주시청 시민숲에서 열린다.

광시련은 2015년 시각장애인 사진프로그램을 시작해 회원들이 장애라는 신체적 한계에 굴하지 않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아가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상상클럽은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작품활동과 봉사활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도실명으로 좌절에 빠진 젊은 젊은 시각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 주제는 ‘테마가 있는 사계-행복을 찾아서’다. 회원들은 매월 둘째 토



요일에 광주·전남의 명소를 탐방, 다양한 풍광을 앵글에 담았다.

시민숲 행사에 이어 12월 13일부터 2월 말까지는 광주지하철 상무역에서 전시회가 이어진다.

한편 상상클럽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갚기 위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마봉사 및 장수사진 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모던스타일

클래식스타일

지중해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